

2005년 시멘트 수급 전망

김재영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2005년 경제진단

2005년중 세계경제성장률은 금년보다는 낮아지겠지만 과거 10년간 평균치 3.6%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세계교역도 비교적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향후 우리 경제여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원유가는 세계경제 성장 감속으로 원유수요가 둔화되면서 국제유가는 금년에 비해 소폭 낮아질 전망이지만 주요 산유국의 공급불안요인은 여전히 잠재하여 있다. 한편 그 동안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던 가계부채는 은행 및 신용카드사 경영상황 개선에도 불구하고 크게 개선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또한 정부는 건설경기 위축 전망에 대응하여 종합투자계획을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SOC, 주택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주력하면서 성장잠재력 확충에 필요한 인력개발, 소프트웨어 개발 등에도 투자할 계획이다.

2005년중 고용사정은 성장세 둔화와 이에 따른 기업의 감량 경영 등의 영향으로 개선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실업률은 내년 상반기중 다소 상승하다가 하반기에는 하락하여 금년(3.5%)과 비슷하거나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2005년중 소비자물가는 3.0%(연평균대비 기준) 내외로 금년(3.6%)보다 상승률이 낮아질 전망이다. 내수부진으로 수요압력이 미약한 데다 국제유가 및 임금이 안정세를 지속하고 원화강세도 수입물가 안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금년(2.9%)과 비슷

한 수준(2.8%)이 예상된다. 이를 토대로 본 2005년의 경제여건은 다소 개선되겠지만 수출과 건설투자의 둔화로 GDP 성장률이 금년 4.7%(추정)보다 낮은 4% 정도에 머물 전망이다. 2004년에 상품수출(실질)이 2005년에는 한 자릿수 증가에 그칠 전망이고 건설투자도 2004년에 비해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 건설경기선행지표 : 건축허가

선행건설경기지표인 건축허가는 부동산 투기 대책 등의 효과로 2003년 8월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10.29조치 등의 영향으로 2004년부터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특히 건축경기를 주도하는 주거용 건축과 상업용 건축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그 결과 2004년도 건축허가는 전년 대비 23.6%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외환위기로 인하여 우리 경제가 IMF체제로 진입한 1998년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이다. 용도별로 보면, 주거용 건축허가는 부동산 경기의 침체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29.7%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며 비주거용 건축허가도 오피스텔이나 오피스 건물 등 상업용 건축이 27.1%의 큰 폭 감소로 인하여 18.8%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외에 공업용 건축허가도 10.7% 감소하였으며 문교·사회·기타 건축허가도 5.3% 감소하였다. 건축허가는 향후 1년 전후의 선행 건설경기 동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2004년의 건축허가 추이는 향후 건설경

기가 당초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하강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한편, 2005년부터 우리 경제가 다소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부동산경기 냉각현상이 더욱더 심화하고 있으며 경기악화로 소비 및 투자도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의 감소세가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05년도의 건축허가는 2004년도의 건축허가의 큰 폭의 감소가 반영되어 감소폭은 다소 줄어들고 있지만 2004년에 이어서 2005년에도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용도별로, 주거용 건축허가는 2004년도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세로 전년대비 약 7% 수준의 증가세를 보일 것이다. 그러나 주택건축허가의 증가는 전년도의 큰 폭에 따른 감소세로 주택·부동산 경기가 회복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다. 주거용 건축허가에 비해 비주거용 건축허가는 상업용, 공업용, 문교·사회·기타용 건축허가의 지속적인 감소로 12.4%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표-1>)

3. 건설경기동행지표 : 건설투자

2004년의 건설투자는 부동산경기 안정화 조치의 영향이 가시화하면서 2003년의 활황세가 둔화하였다. 실질 건설투자의 증가는 연초 예상보다는 다소 둔화 폭이 줄어들었으나 2003년보다 증가율이 약 5.6%포인트 둔화되어 2.0%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측된다. 부문별로 토목용 건설투자는 정부의 건설경기 연착륙에 대한 관심에 힘입어 전년대비 1.7%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2003년에 1.5% 감소한 것에 비하면 증가 폭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비주거용 건설투자는 부동산 경기 하락이 반영되어 전년대비 2.5% 증가에 그쳐서 2003년도 25.0%의 증가에 비하면 큰 폭으로 증가세가 둔화된 셈이다. 주택건설투자는 부동산 경기의 급격한 하락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1.8% 소폭 증가하였다. 2004년도 실질건설투자 동향을 감안할 때, 건설경기 하강속도가 아주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다소 빠르다고 할 수 있

<표-1> 연간 건축허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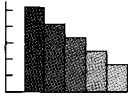
(단위 : 천㎡)

	주거용	비주거용				총건축
		상업용	공업용	문교사회기타		
2001	49,159.4	49,861.4	25,887.9	13,538.5	10,435.1	99,020.8
(증감율)	19.1%	25.4%	37.1%	16.2%	12.8%	22.2%
2002	56,713.2	81,043.9	49,452.7	15,436.9	16,154.2	137,757.0
(증감율)	15.4%	62.5%	91.0%	14.0%	54.8%	39.1%
2003	61,919.5	79,793.0	45,678.4	14,718.1	19,396.5	141,712.5
(증감율)	9.2%	-1.5%	-7.6%	-4.7%	20.1%	2.9%
2004	43,542.7	64,793.2	33,296.1	13,136.4	18,360.6	108,335.8
(증감율)	-29.7%	-18.8%	-27.1%	-10.7%	-5.3%	-23.6%
2005	46,611.4	56,780.5	26,441.8	12,198.8	18,139.9	103,391.8
(증감율)	7.0%	-12.4%	-20.6%	-7.1%	-1.2%	-4.6%

주 :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2004년 10월까지의 건축허가를 토대로 전망한 것임.

다. 이에 대해서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러한 대책의 효과가 2005년 상반기부터 나타나지 않으면 2005년에 들어서 건설경기 하강속도가 2004년보다 다소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감안할 때 2005년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건설경기의 안정이라고 할 수 있다. 건설경기 하강속도가 늦추어져서 연착륙할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건설경기는 2004년 이후 침체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건설경기가 안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04년에 건축허가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감소세가 2005년에도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건설경기 하강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경기가 침체국면으로 접어들어 따라서 2005년에는 민간부문인 주거용과 비주거용 건설투자의 감소로 총 건설투자는 1.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문별로 보면 주거용 건설투자는 부동산투기억제 조치의 영향이 가시화하여 전년대비 4.3%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비주거용 건설투자는 상업용 건축부문의 부진 등으로 크게 위축되어 3.3%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정부에서 건설



전망

〈표-2〉 연간 건설투자 추이

	총건설투자	주거용	비주거용	토목용
2001	102,438	28,210	25,555	48,673
(증감율)	6.0%	12.9%	8.2%	1.2%
2002	107,883	31,431	30,363	46,089
(증감율)	5.3%	11.4%	18.8%	-5.3%
2003	116,057	32,714	37,967	45,377
(증감율)	7.6%	4.1%	25.0%	-1.5%
2004	118,350	33,301	38,902	46,147
(증감율)	2.0%	1.8%	2.5%	1.7%
2005	116,350	31,875	37,630	46,844
(증감율)	-1.7%	-4.3%	-3.3%	1.5%

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04년 3/4분기까지의 건설투자를 토대로 예측한 것임

경기 연착륙 방안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토목용 건설투자는 전년도와 거의 같은 수준인 1.5%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표-2〉)

그러나 건설투자는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재정지출이 보수적으로 집행될 경우 내수회복 속도를 부진하게 만드는 주된 요인 중 하나가 될 것이며 이는 건설투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2005년 건설투자의 가장 큰 변수는 정부의 2005년 종합투자계획이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어떻게 실현될지'가 될 것이다. 고속도로, 철도 등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SOC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항만 및 공항시설 확충,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 공공부문의 건설투자가 확대된다면 건설투자가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된다고 하여도 실제로 건설투자로 반영될 때까지는 일정기간이 경과하여야 하기 때문에 건설투자가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지만 이들 계획이 추진되면 감소폭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4. 2005년 시멘트수급 전망

시멘트 수요는 건설활동의 유발수요로 간주할 수

〈표-3〉 2005년 시멘트 수요전망

(단위: 천M/T)

	총 건설	주거용	비주거용	토목용
2004	55,386	25,700	11,946	17,740
2005	54,163	24,600	11,556	18,008
비 고	△1,223	△1,100	△390	268

주: 건설투자액을 기초로 투자액당 원단위를 적용하여 추산한 값임.

있다. 이를 감안하여 앞에서 예측된 건설투자를 토대로 시멘트 수요를 추정하였다. 이는 이론적으로 추정된 수요라 할 수 있다. 이 시멘트 수요를 기준으로 시멘트 수급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데 시멘트 내수량이 시멘트 수요량을 웃돌면 향후 시멘트 소비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으며 시멘트 공급량이 밑돌면 시멘트 소비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이는 시멘트업체가 향후 시멘트 생산량을 결정하고 시장전략을 수립하는데 참고가 될 것이다.

가. 시멘트 수요

시멘트 수요는 건설투자 변동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대책 등은 향후 시멘트 수요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근의 정부의 조치는 부동산투기억제대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주로 주거용 또는 비주거용 건설투자의 감소는 시멘트 수요를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2004년에는 건설경기가 본격적인 수축국면으로 접어들 것이기 때문에 건설투자의 증가세도 크게 둔화되었다. 때문에 시멘트 수요도 증가폭이 둔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를 감안하여 시멘트 수요량을 추산한 결과 2004년에 약 5,539만톤 수준에서 2005년에는 123만톤이 감소하여 약 5,416만톤일 것으로 추정된다. 토목용 건설투자는 다소 증가하였지만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설투자의 감소에 따라서 시멘트 수요량도 감소하였다.(〈표-3〉)

나. 시멘트 공급 전망

우리나라의 시멘트 공급능력은 생산량과 가동율

〈표-4〉 2005년 시멘트 수급(생산·출하·수출입·재고) 전망

(단위 : 천톤)

	생 산	수 입	계	국내출하	수 출	계	재 고
2003	59,193.8	1,808.9	61,002.7	58,302.3	2,611.8	60,914.1	1,226.4
2004	54,353.0	3,356.0	57,709.0	55,000.0	2,609.0	57,609.0	1,235.0
2005 ^{*)}	54,000.0	3,500.0	57,500.0	54,000.0	3,800.0	57,800.0	1,200.0

주) 2003~2004는 양회협회자료, 2005년은 시멘트 수요 전망 결과를 근거로 추정된 것임.

그리고 전년도 재고율로 판단할 수 있다. 시멘트 생산능력은 1986년부터 1997년까지 연평균 약 10%씩 증가하여 2004년 현재 약 6,500만 톤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증설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1998년 수준인 6,500만톤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실제 생산량과 공급량은 생산능력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 지속되고 있다. 2004년의 경우 시멘트 생산량은 2003년에 비해 약 480만톤이 감소한 5,435.3만톤이었다. 이는 우리나라 시멘트 생산능력의 약 84% 수준에 달하고 있다. 한편 시멘트 수입량을 포함한 국내 총공급량은 5,770.9만톤으로 이는 2004년도 시멘트 수요의 92%를 충당하는 셈이다. 그리고 2004년에는 시멘트 재고량은 123만톤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2004년에는 시멘트 수급이 안정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2005년에는 건설경기가 본격적으로 침체국면으로 접어들 것이기 때문에 건설투자의 감소에 따라서 시멘트 수요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서 시멘트 공급도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즉 2004년도와 유사한 시멘트 수급구조가 이루어질 경우 시멘트의 공급량은 약 120만톤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시멘트 생산량도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005년도 시멘트 공급은 2004년 시멘트 재고와 2005년 해외 건설시장 여건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시멘트 공급량의 감소 폭은 아주 크지 않을 것이다. 특히 중국과 동남아 등지의 개발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시멘트 수출량이 다소 증가하

면 시멘트 수급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시멘트의 국내수요는 건설경기 후퇴로 다소 감소할 것이지만 해외수요의 증가로 2005년의 시멘트 공급량은 2004년 수준은 유지할 것이다. 즉 2004년과 거의 유사한 시멘트 수급구조가 유지될 경우 시멘트 국내출하량은 시멘트수요량에 거의 근접하여 5,400만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해외 수입 물량을 다소 축소하고 수출물량을 국내수요 감소분 정도로 늘릴 수 있다면 2005년에는 건설경기가 침체국면에 진입하여 국내수요가 감소한다고 하여도 시멘트 생산량도 2004년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 시사점

건설경기가 침체국면으로 접어들면 시멘트 수요가 감소하고 단기적으로 시멘트 출하량의 감소폭이 실질적으로 시멘트 수요 감소폭 보다 커질 수 있다. 그러면 시멘트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 시멘트 수급이 매우 불안정하게 된다. 이는 건설경기 침체에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시멘트 출하량의 감소폭이 줄어들면서 안정되게 된다. 따라서 건설경기 침체에 중요한 것은 시멘트 수급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그 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이 국내시멘트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시멘트 수출과 수입량의 조정이다. 특히 2005년에는 건설경기가 본격적인 침체국면에 접어들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통한 국내 시멘트 수급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표-4〉) ▲